

## 친환경 식품과 가공 식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및 소비 형태

안정희 · †강근옥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 Consumption Type of Housewives about Organic and Instant Food

Jeong-Hee An and †Kun-Og Kang

*Department of Nutrition and Culinary Scienc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Korean housewives' recognition and consumption type about organic and instant food. The questionnaire were answered by the housewives in Seoul, Kyunggi-do and Chungcheong-do areas. 94.1% of the housewives were aware of the organic food and 71.7% were consuming it. However, majority(95.9%) thought the price was too expensive. The biggest reason why the housewives did not purchase organic food was the high price(43.8%). But 60.6% of the housewives bought organic food because of its safety. The most preferred organic food type of the housewives was vegetable and lettuce was most consumed organic vegetable. Instant food was used by 96.7% of the housewives. 29.9% used instant food once a week, and the number of using instant food from one to seven times a week were 73.8%. Time saving was the biggest reason(51.3%) of using instant food, but 72.4% of the housewives did not buy instant food because of its artificial color, added preservatives, and the low safety level. Housewives liked fish and meat products(37.4%) and awareness of the names of companies made difference in consuming.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ood expenses and purchase of organic food, and between housework and organic food, and between housework and number of uses ( $p<0.05$ ).

Key words : survey, organic food, instant food, recognition, consumption

#### 서론

최근 3~4년 사이에 각종 공해 문제가 표출됨과 함께 식품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 친화적 농산물에 관한 중요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동안 친환경 농업은 환경 농업, 환경 친화적 농

업, 지속 가능한 농업, 유기 농업, 자연 농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전해 왔다. 농림부에서는 1991년 7월에 유기 농업 발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유기 농업의 지도와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등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이래 1998년에는 '환경 농업 육성법'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 농산물, 무농약 재배 농산물, 저농약 재배 농산물, 일반 재배 농산물 등 5가지로 구분하게 되었다<sup>1)</sup>.

† Corresponding author : Kun-Og Kang, Dept. of Nutrition and Culinary Scienc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Seongjung-dong, Ansong-si, Kyunggi-do.

Tel : +82-31-670-5181, 017-265-9522, E-mail :occo-9522@hanmail.net

친환경 농산물은 1970년대부터 소수의 친환경 농업 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한살림 공동체 생활 협동 조합' 자료에 의하면, 1987년 유기 농산물 생산 품목 수는 32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유기 농산물 품목 수는 1990년 이후 식량작물, 채소류와 과일류, 특용작물, 가공식품 및 축산물 등으로 품목 수가 급격히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2)</sup>.

그 중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로는 쌀 55%, 채소 22% 및 과수 15%(2000년 9월 기준) 등이다. 쌀은 국민의 기본 식량이므로 연중 수요가 고르고 저장성이 높으며 배추, 상치, 썩갓, 당근, 토마토, 딸기 등의 채소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친환경 농업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도, 감귤, 유자 등의 과수는 유기 재배로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소수이고, 사과, 복숭아 등은 아직까지 유기 재배로 생산하지 못하고 저 농약 재배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한 생선제품으로 야채주스, 딸기잼 등의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에 대한 건강 관심고조로 분유 업체의 분유 원료로 이용되어지는 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쌀 가공이 증가하고 있다<sup>1~3)</sup>.

한편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주거 형태 변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해 식품의 소비 패턴에서도 편의형, 시간 절약형, 건강 추구형으로 급격히 바뀌어지고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sup>4)</sup>.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선택 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점차 확대 수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연구들로는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sup>5,6)</sup>, 무공해 식품의 소비 행동에 관한 실태 조사<sup>7,8)</sup>,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한 불만족과 영향 변수를 검토한 연구<sup>9)</sup>, 주부들의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구매 행동 등에 대한 연구<sup>10,11)</sup> 등이 있다.

가공 식품은 운반과 저장이 간편하고, 먹기 쉽고, 조리 시간의 절약, 영양소 보강 등 편리성으로 인하여 instant food, convenience food, fast food 란 용어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반 조리 식품에서 조리 식품까지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 공정상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많아 이의 안전성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 정도에 따라 소비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식생활 개선 범 국민 운동 본부의 조사<sup>12)</sup>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0%가 식품 첨가물의 사용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에서 웰빙의 개념 도입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폭되

고 있는 이때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부들이 친환경 식품과 가공 식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 형태는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친환경 식품과 가공 식품의 소비 간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아 식품의 소비 실태를 파악함과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조사 내용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현황, 그리고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현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에서 11월까지 총 400부를 배부하고 회수된 것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0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한 후 SAS package<sup>13)</sup>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 결혼 기간, 식생활비, 가공 식품 구입비, 가사 노동의 형태 등을 묻는 일반적 특성 및 순위와 관련된 문항 등은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 집단간의 친환경 식품과 가공 식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유의성은 교차 분석( $\chi^2$ -test)을 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답한 주부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은 40~49세가 46.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0~39세가 34.7%, 20~29세가 11.2%, 50세 이상이 7.3%이었다. 결혼 기간은 10~15년 미만이 28.6%로 가장 많았으며 15~20년, 20~25년이 각각 18.5%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주부가 전체의 72.0%를 차지하였다.

주거지역은 서울이 47.3%, 경기도 17.0%, 충청도 35.7%로 다소 지역이 편중되게 조사되었다. 가구 형태는 핵가족이 89.8%로 단연 많았으며 가족수는 3~4명이 6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직업은 '주부로서의 역할만 한다'가 46.9%로 가장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Variable	N(%)
Age		Monthly Income(ten thousand won)	
20~29	34(11.2)	200 ≥	92(30.6)
30~39	105(34.7)	200~300	98(32.6)
40~49	142(46.3)	300~400	52(17.3)
50 ≤	22( 7.3)	400~500	32(10.6)
Years of marriage		500 ≤	27( 9.0)
1~5yrs	37(12.8)	Monthly food expenses (eating out not included)	
5~10yrs	45(15.2)	20~40	88(29.3)
10~15yrs	85(28.6)	40~60	111(37.0)
15~20yrs	55(18.5)	60~80	48(16.0)
20~25yrs	55(18.5)	80 ≤	53(17.7)
25 ≤ yrs	19( 6.4)	Meonthly eating out expan-ses	
Residence area		Not at all	13( 4.3)
Seoul	142(47.3)	5	57(18.8)
Kyunggido	51(17.0)	5~10	116(38.2)
Choongchungdo	107(35.7)	10~20	80(26.3)
Family type		20 ≤	38(12.5)
Nuclear family	272(89.8)	Mmonthly purchase of instant food	
Large family	31(10.2)	5	150(49.7)
Number of family		5~10	89(29.5)
2 persons	19( 6.3)	10~15	32(10.6)
3~4 persons	211(69.6)	15 ≤	31(10.3)
5 ≤ persons	73(24.1)	Type of houseworks(food criteria)	
Occupations		Alone	165(54.3)
Housewife	142(46.9)	Helper	139(45.7)
Business	33(10.9)	Bbuyer of food products	
Shop owner	36(11.9)	Housewife	212(69.7)
Professional	45(14.9)	Not the housewife	92(30.3)
Other	47(15.5)	Education	
Education		Highschool graduate	165(54.5)
Highschool graduate	165(54.5)	College graduate	138(45.5)
College graduate	138(45.5)		

많았고 다음은 14.9%가 전문직에 종사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54.5%와 45.5%로 거의 같았다.

월 평균 가계수입은 200~300만원 사이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만원 미만(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비로는 '40~60만원을 쓴다'가 37.0%, 다음은 '20~40만원을 쓴다'고 답한 주부가 29.3%였다.

월 평균 외식비는 '5~10만원 정도 쓴다'가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6.3%가 10~20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 구입에는 거의 10만원 이하(80%)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수입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응답 경향으로 미루어 분석해 보았을 때 외식비 포함 평균 20~25%의 엔겔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2003년 식생활비 27.7%). 이는 수입이 많은 가정이나 적은 가정 모두 수입에 비해 식생활비가 상당히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생활에서 식생활 이외의 생활현상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식생활에서 가사노동은 54.3%가 혼자하고, 45.7%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식품 구입은 주로(69.7%) 주부 자신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부들의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조사

주부들의 친환경 식품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용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 Table 2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분류 및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 '약간 안다'가 66.0%로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sup>14)</sup>의 연구에서 친환경 식품에 대한 품질 관리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0.7%, 경험이 없다고 한 응답자 중 85.9%를 차지한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주부는 71.7%로 나타났으며 가격에 대한 인식은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를 차지해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를 보면 Table 3과 같이 농약 등 화학 비료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란 것이 60.6%로 단연 높았는데 이는 고<sup>14)</sup>의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77.7%로 가장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양 성분 등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17.6%였으며, 방충 매체를 통한 구입 동기도 10.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을 곡류, 두류, 서류, 김치 재료, 채소류 및 과일류로 구분하고 가장 많이 구입하는 식품류를 1에서부터 6까지 순위를 정하도록 한 결과 Table 4

와 같이 채소류를 1순위로 응답한 것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순위가 많은 것은 곡류(24.7%), 두류(23.7%)였다. 순위 평균으로 선호도를 종합해 보면 채소류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다음은 두류, 곡류, 과일류, 김치 재료, 서류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로 가장 선호하는 채소류 중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Table 4)은 상추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나물류, 배추, 콩나물, 깻잎, 오이 등의 순서였다.

한편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한 주부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Table 5와 같이 가격이 비싸서(43.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구입하는 것이 불편해서(27.5%),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이 아닌 것과 품

**Table 2. Awareness and present condition of organic food**

Variable	N(%)
Awareness of categories and significance of organic food	
Well awared	85(28.1)
Little awared	200(66.0)
Not awared	18( 5.9)
Are you purchasing organic food	
Yes	218(71.7)
No	86(28.3)
Opinion on the price of organic food	
Too expensive	104(47.7)
Little expensive	105(48.2)
Average	9( 4.1)
Little cheap	0( 0)
Cheap	0( 0)

**Table 3. Reason for purchasing organic food**

Variables	N(%)
Reason for purchasing organic food <sup>a</sup>	
Possible adding of preservatives and chemicals	131(60.6)
Higher nutrients	38(17.6)
Higher quality and freshness	17( 7.9)
Recommandations from TV media	22(10.2)
Recommandations of friends and relatives	8( 3.7)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organic food.

**Table 4. Preference of the purchased organic food**

Variables	N(%) <sup>b</sup>	M(SD) <sup>c</sup>
Types of organic food purchased <sup>d</sup>		
Grains-rice, cereal, flour, etc.	53(24.7)	3.13(1.75)
Beans - beans, to - fu, bean sprouts, etc.	51(23.7)	2.77(1.44)
Potatoes, sweet potatoes, etc.	3 ( 1.4)	4.66(1.20)
Kimchi - cabbage, radish, seasonings, etc.	9 ( 4.2)	3.82(1.32)
Vegetables - raw and wild vegetables	89(41.4)	2.16(0.83)
Fruits	10( 4.7)	3.73(1.33)
Most purchased organic food <sup>d</sup>		
Chinese cabbage	10( 5.7)	2.18(0.16)
Lettuce(sangchoo)	117(67.2)	1.36(0.67)
Pepper	2( 1.1)	2.33(0.75)
Wild vegetables	13( 7.5)	2.11(0.71)
Kale	0( 0.0)	2.5 (0.5 )
Cucumber	6( 3.4)	2.15(0.86)
Mustard and green onion	2( 1.1)	2.33(0.75)
Sesame leaf	6( 3.4)	2.14(0.73)
Chicory	0( 0.0)	2.33(0.47)
Cabbage	0( 0.0)	3 (0.00)
Bean sprout	9( 5.2)	1.94(0.68)
Radish	0( 0.0)	2.22(0.46)
Broccoli	1( 0.6)	1.75(0.43)
Spinach	1( 0.6)	2.08(0.51)
Bok choy	0( 0.0)	2 (0.00)
Green pepper	2( 1.1)	1.67(0.86)
Carrot	1( 0.6)	1.83(0.37)
Herb	0( 0.0)	2 (0.00)
Young zucchini	2( 1.1)	1.83(0.66)
Tomato	1( 0.6)	1.67(0.47)
Onion	0( 0.0)	2.75(0.57)
Scallion	0( 0.0)	3 (0.00)
Lettuce(yang sangchoo)	1( 0.6)	2.35(1.03)
Garlic	0( 0.0)	3 (0.00)
Crown daisy	0( 0.0)	3 (0.00)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organic food, <sup>b</sup> Frequency and % about the 1st rank, <sup>c</sup> Ranking and average and average difference.

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22.5%)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한 높은 응답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주부들도 같은 생각으로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Table 5)에서는 52%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 37.5%였고 '없다'는 12.5%만 차지하여 점차 주부들의 구입 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구입한다면 어떤 식품을 가장 많이 이용하겠는가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 주부들에서와 같이 채소류가 4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곡류(25.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는 채소류는 씻어서 그냥 섭취하는 조리법이 많고 곡류는 우리의 주식으로서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식품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Reason for not purchasing organic food and opinions about purchasing**

Variables	N(%)
Reason for not purchasing organic food <sup>a</sup>	
Expensive price	35(43.8)
Not much difference in quality	18(22.5)
Unavailability of organic food	22(27.5)
No information about where to buy	3( 3.8)
Unaware of the variations of organic food	2( 2.5)
Do you consider buying organic food <sup>a</sup>	
Yes	40(50.0)
No	10(12.5)
Not sure	30(37.5)
If you are, which product will you buy the most <sup>a</sup>	
Grains - rice, cereal, flour, etc.	20(25.3)
Beans - beans, to-fu, bean sprouts, etc.	7( 8.9)
Potatoes, sweet potatoes, etc.	2( 2.5)
Kimchi - cabbage, radish, other seasonings	2( 2.5)
Vegetables - raw and wild vegetables	38(48.1)
Fruits	10(12.7)

<sup>a</sup> In a case of not purchasing organic food.

### 3. 주부들의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조사

주부들의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조사하였는데 Table 6과 같이 '자주' 및 '가끔 이용한다'가 96.7%로 거의 모든 주부가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빈도에서는 1주일에 1번 정도가 29.9%로 가장 높았고 4~5일에 한번 정도는 23.0%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공 식품을 구입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는 대형 슈퍼마켓(84.6%)이었다.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사유는 Table 7과 같이 '시간이 절약된다'가 51.3%로 가장 높았고 '조리가 간편하다'가 23.3%로 다음을 차지해 주부들이 가공식품을 이용할 때 편의성을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sup>10)</sup>의 연구에서 가공 식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를 도시락 반찬(62.6%)으로

**Table 6. Use and purchasing place of instant food**

Variables	N(%)
Use of instant food	
Many times	47(15.6)
Occasionally	244(81.1)
Not at all	10( 3.3)
If using, how many times <sup>a</sup>	
Everyday	10( 3.4)
Once in 2~3 days	51(17.5)
Once in 4~5 days	67(23.0)
Once a week	87(29.9)
Once in 10 days	23( 7.9)
Once in 15 days	26( 8.9)
Once a month	27( 9.3)
Purchasing place	
Small store	9( 3.1)
Supermarket	242(84.6)
Convenience store	7( 2.4)
Side dish store	5( 1.7)
Department	11( 3.8)
Internet(on-line shopping)	1( 0.3)
Traditional market	11( 3.8)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inorganic food.

뽑았고 다음은 조리의 간편(19.5%), 시간의 절약(8.0%)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안<sup>10)</sup>의 연구는 학교 급식이나 외식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1989년의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Table 9의 가공 식품의 선호도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락용 반찬류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학교 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는 자녀들의 도시락 반찬 해결보다는 주부들이 식생활의 간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가공 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를 1순위로 해서 9순위까지 물은 결과(Table 7) 첨가물을 넣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가 1순위로 가장 많이(72.4%) 뽑았으며 다음은 가공 공정의 비위생적 인면에 대한 염려(8.9%), 가족이 싫어 한다(5.9%), 가격이 비싸다(3.9%)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ason for using and not using instant food**

Variables	N(%) <sup>a</sup>	M(SD) <sup>b</sup>
Reason for buying instant food		
Saves time	143( 51.3)	2.29(1.95)
Saves money	16( 5.7)	4.58(2.03)
Availability to control the amount of buying	11( 3.9)	4.70(2.01)
Good taste	8( 2.9)	6.64(2.09)
Always same taste	3( 1.1)	6.18(1.84)
Many varieties in menu	10( 3.6)	5.28(2.02)
Easy to purchase	20( 7.2)	4.12(2.07)
Simple cooking	65(23.3)	3.44(2.39)
Food safety	3( 1.1)	7.68(2.00)
Reason for not buying instant food		
Possible addition of the preservatives	147(72.4)	1.54(1.15)
Expansive price	8( 3.9)	4.61(1.84)
No preference in taste	8( 3.9)	4.56(1.65)
Poor taste	7( 3.5)	4.61(1.60)
Not reliable on processing safety	18( 8.9)	3.20(1.66)
Packing is not clean	3( 1.5)	4.67(1.63)
Family prefers homemade	12( 5.9)	4.83(2.00)

<sup>a</sup> Frequency and % about the 1st rank.

<sup>b</sup> Ranking and average and average difference.

이는 안<sup>10)</sup>의 연구에서 가공 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에 좋지 않다(46.9%), 가격이 비싸다(29.9%), 믿을 수 없다(16.3%), 가족이 싫어한다(6.9%)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는 주부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가공 식품 이용시의 불만으로는(Table 8) 첨가물 과다 사용(32.4%)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재료의 원산지 불분명(16.9%), 유효 기간 표시 불확실(15.8%) 등의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가공식품은 햄, 소시지 등 육어류 가공식품(37.4%)이었으며 다음은 면류(15.1%), 냉동식품류(12.9%), 주식류(9.0%), 소스류(8.3%)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9).

그리고 가공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을 1순위로 해서 물은 결과 Table 10과 같이 회사명(인지도)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험에 의한다는 것이 18.1%를 차지하였다. 이는 안<sup>10)</sup>의 연구에서 제조날짜(48.0%)를 제외하면 회사 상표(24.0%)와 경험(21.2%)이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 4. 요인에 따른 친환경 및 가공 식품 이용 상관 관계 분석

조사에 참여한 주부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친환경 식품 및 가공 식품 이용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것만 나타내었다.

식생활비에 따른 친환경 식품의 이용 및 비 이용 현황(Table 11)에서 구입 여부 및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Table 8. Dissatisfaction about instant food**

Variables	N(%) <sup>a</sup>	M(SD) <sup>b</sup>
Things needed to be changed or not satisfying of instant food		
Expensive price	30(10.8)	4.89(2.28)
Unclear sign of the period of circulation	44(15.8)	4.30(2.21)
Unclear sign of how to cook	33(11.9)	4.36(2.09)
Unsuitable packing	14( 5.0)	5.14(1.93)
Seasoning and cooking is not tasty	13( 4.7)	4.86(1.96)
Too much preservatives	90(32.4)	2.88(2.04)
Ingredients are from other countries or not clear	47(16.9)	3.29(2.00)
Too much servings per pack	7( 2.5)	6.18(2.07)

<sup>a</sup> Frequency and % about the 1st rank.

<sup>b</sup> Ranking and average and average difference.

**Table 9. Preference of instant food**

Variables	N(%) <sup>a</sup>	M(SD) <sup>b</sup>
Most purchased instant food		
Main food(processed rice, jja-jang bab, curry rice)	25( 9.0)	5.82(2.64)
Soup(seaweed soup, yuk-gae-jang)	6( 2.2)	6.44(2.13)
Side dish(jang-a-chi, etc.)	17( 6.1)	4.84(2.07)
Side dish for lunch-box	15( 5.4)	5.39(2.25)
Processed meat and fish	104(37.4)	3.02(2.30)
Noodles(jja-jang myun, kal-gook-su)	42(15.1)	3.89(2.30)
Sauce(jja-jang, curry, salad dressing)	23( 8.3)	4.03(2.09)
Kimchi	10( 3.6)	6.20(2.40)
Frozen products	36(12.9)	4.03(2.34)

<sup>a</sup> Frequency and % about the 1st rank.

<sup>b</sup> Ranking and average and average difference.

**Table 10. Standard on choosing and purchasing instant food**

Variables	N(%) <sup>a</sup>	M(SD) <sup>b</sup>
Standard on choosing and purchasing instant food		
High recognition of company	109(39.4)	2.96(2.16)
High nutrients	24( 8.7)	3.88(1.87)
Good Taste	38(13.7)	3.74(1.84)
Lots of advertisement	18( 6.5)	4.77(2.13)
From experience	50(18.1)	3.86(2.08)
Cheap price	4( 1.4)	6.21(1.89)
Good packing and design	2( 0.7)	6.23(1.83)
Good sanitation	32(11.6)	4.28(2.26)

<sup>a</sup> Frequency and % about the 1st rank.

<sup>b</sup> Ranking and average and average difference.

**Table 11. Use and disuse of organic food depending on the food expenses**

N(%)

	Food expenses(ten thousand won)				Total	
	20~40	40~60	60~80	80 ≤		
Are you purchasing organic food						
Yes	61(20.3)	79(26.3)	35(11.7)	40(13.3)	215(71.7)	DF=3
No	27( 9.0)	32(10.7)	13( 4.3)	13( 4.3)	85(28.3)	$\chi^2=0.67$
Total	88(29.3)	111(37.0)	48(16.0)	53(17.7)	300(100)	$p=0.881$
Reason for purchasing organic food <sup>a</sup>						
①	39(18.3)	47(22.1)	21( 9.9)	22(10.3)	129(60.6)	
②	11( 5.2)	11( 5.2)	8( 3.8)	8( 3.8)	38(17.8)	
③	7( 3.3)	7( 3.3)	0( 0.0)	2( 0.9)	16( 7.5)	DF=12
④	2( 0.9)	13( 6.1)	2( 0.9)	5( 2.3)	22(10.3)	$\chi^2=23.57$
⑤	1( 0.5)	0( 0.0)	4( 1.9)	3( 1.4)	8( 3.8)	$p=0.023$
Total	60(28.2)	78(36.6)	35(16.4)	40(18.8)	213(100)	
Reason for not purchasing organic food <sup>b</sup>						
①	14(17.7)	9(11.4)	4( 5.1)	7( 8.9)	34(43.0)	
②	3( 3.8)	10(12.7)	2( 2.5)	3( 3.8)	18(22.8)	
③	7( 8.9)	11(13.9)	3( 3.8)	1( 1.3)	22(27.8)	DF=12
④	1( 1.3)	2( 2.5)	0( 0.0)	0( 0.0)	3( 3.8)	$\chi^2=14.38$
⑤	0( 0.0)	0( 0.0)	1( 1.3)	1( 1.3)	2( 2.5)	$p=0.277$
Total	25(31.6)	32(40.5)	10(12.7)	12(15.2)	79(100)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organic food, ① The possibility of adding preservative/ ② Higher nutrients/ ③ Higher quality and freshness/ ④ Recommendations from TV media/ ⑤ Recommendations from friends and relatives.

<sup>b</sup> In a case of not purchasing organic food, ① Expensive price/ ② Not much difference in quality / ③ Unavailability of organic food/ ④ No informations about where to buy/ ⑤ Unaware of the variations of organic food.

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구입 동기에서는 식생활비 사용 금액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사 노동의 형태에 따른 친환경 식품의 이용 및 비이용 현황에서 Table 12와 같이 구입 여부 및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구입 동기에서는 가사 노동을 주부 혼자서 하느냐 또는 주부의 타인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Table 12. Use and disuse of organic food depending on the doers of houseworks** N(%)

	Type of houseworks			N(%)
	Alone	Helper <sup>c</sup>	Total	
<b>Are you purchasing organic food</b>				
Yes	120(39.5)	98(32.2)	218(71.7)	DF=1 $\chi^2=0.18$ $p=0.668$
No	45(14.8)	41(13.5)	86(28.3)	
Total	165(54.3)	139(45.7)	304(100)	
<b>Reason for purchasing organic food<sup>a</sup></b>				
①	85(39.4)	46(21.3)	131(60.6)	DF=4 $\chi^2=12.44$ $p=0.014$
②	14( 6.5)	24(11.1)	38(17.6)	
③	7( 3.2)	10( 4.6)	17( 7.9)	
④	10( 4.6)	12( 5.6)	22(10.2)	
⑤	4( 1.9)	4( 1.9)	8( 3.7)	
Total	120(55.6)	96(44.4)	216(100)	
<b>Reason for not purchasing organic food<sup>b</sup></b>				
①	19(23.8)	16(20.0)	35(43.8)	DF=4 $\chi^2=3.94$ $p=0.415$
②	9(11.3)	9(11.3)	18(22.5)	
③	9(11.3)	13(16.3)	22(27.5)	
④	3( 3.8)	0( 0.0)	3( 3.8)	
⑤	1( 1.3)	1( 1.3)	2( 2.5)	
Total	41(51.3)	39(48.8)	80(100)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organic food, ① The possibility of adding preservative/ ② Higher nutrients/ ③ Higher quality and freshness/ ④ Recommendation from TV media/ ⑤ Recommendation from friends and relatives.

<sup>b</sup> In a case of not purchasing organic food, ① Expensive price/ ② Not much difference in quality/ ③ Unavailability of organic food/ ④ No information about where to buy/ ⑤ Unaware of the variations of organic food.

<sup>c</sup> Other family members or helper.

가사노동 형태에 따른 가공식품의 이용 현황을 보면 Table 13과 같이 이용여부 및 구입 장소에서는 유

**Table 13. Use of instant food depending on the type of houseworks** N(%)

	Type of houseworks			N(%)
	Alone	Helper <sup>b</sup>	Total	
<b>Use of instant food</b>				
Many times	20( 6.6)	27( 9.0)	47(15.6)	DF=2 $\chi^2=3.24$ $p=0.198$
Occasionally	138(45.8)	106(35.2)	244(81.1)	
Not at all	6( 2.0)	4( 1.3)	10( 3.3)	
Total	164(54.5)	137(45.5)	301(100)	
<b>If using, how many times<sup>a</sup></b>				
Everyday	8( 2.8)	2( 0.7)	10( 3.4)	DF=6 $\chi^2=13.31$ $p=0.038$
Once in 2~3 days	21( 7.2)	30(10.3)	51(17.6)	
Once in 4~5 days	31(10.7)	36(12.4)	67(23.1)	
Once a week	55(19.0)	32(11.0)	87(30.0)	
Once in 10 days	12( 4.1)	11( 3.8)	23( 7.9)	
Once in 15 days	13( 4.5)	13( 4.5)	26( 9.0)	
Once a month	18( 6.2)	8( 2.8)	26( 9.0)	
Total	158(54.5)	132(45.5)	290(100)	
<b>Purchasing Place</b>				
Small store	5( 1.7)	4( 1.4)	9( 3.1)	DF=6 $\chi^2=2.02$ $p=0.918$
Supermarket	133(46.5)	109(38.1)	242(84.6)	
Convenience store	3( 1.0)	4( 1.4)	7( 2.4)	
Side dish store	3( 1.0)	2( 0.7)	5( 1.7)	
Department	5( 1.7)	6( 2.1)	11( 3.8)	
Internet(on-line shopping)	1( 0.3)	0( 0.0)	1( 0.3)	
Traditional market	7( 2.4)	4( 1.4)	11( 3.8)	
Total	157(54.9)	129(45.1)	286(100)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instant food.

<sup>b</sup> Other family members or helper.



**Table 14. Corresponding of using organic and instant Food** N(%)

	Purchase of organic food			
	Yes	No	Total	
Use of instant food				
Many times	30(10.0)	17( 5.6)	47(15.6)	DF=2 $\chi^2=1.782$ $p=0.410$
Occasionally	179(59.5)	65(21.6)	244(81.1)	
Not at all	7( 2.3)	3( 1.0)	10( 3.3)	
Total	216(71.8)	85(28.2)	301(100)	
If using, how many times <sup>a</sup>				
Everyday	6( 2.1)	4( 1.4)	10( 3.4)	DF=6 $\chi^2=6.125$ $p=0.409$
Once in 2~3 days	37(12.8)	14( 4.8)	51(17.6)	
Once in 4~5 days	46(15.9)	21( 7.2)	67(23.1)	
Once a week	67(23.1)	20( 6.9)	87(30.0)	
Once in 10 days	19( 6.6)	4( 1.4)	23( 7.9)	
Once in 15 days	19( 6.6)	7( 2.4)	26( 9.0)	
Once a month	15( 5.2)	11( 3.8)	26( 9.0)	
Total	209(72.1)	81(27.8)	290(100)	

<sup>a</sup> In a case of purchasing instant food.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이용 횟수에서는 가사 노동을 주부 혼자서 하느냐 또는 주부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

친환경 식품과 가공 식품 이용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본 결과 Table 14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 식품 구입 여부가 가공 식품의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환경 식품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가공 식품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친환경 식품과 가공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 형태를 알아보기로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친환경 식품에 대해 주부들의 약 94.1%가 인지하고

있으며 71.7%는 사용하고 있었다.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는 인식이 많았으며(95.9%), 구입하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가격 때문(43.8%)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구입 동기는 친환경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60.6%).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 가장 선호하는 식품은 채소류였으며 이 중에서도 상추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었다.

한편 가공 식품은 거의 모든 주부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96.7%), 1주일에 1회 이용이 가장 많았고(29.9%), 1주일에 1~7회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면 73.8%가 되었다. 또한 가공 식품 이용의 가장 큰 사유는 시간의 절약(51.3%)이었고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는 첨가물 사용 등 식품의 비 안전성 때문이었으며(72.4%), 가장 선호하는 가공 식품은 육어류 가공 식품류(37.4%)이었고 선택시 회사의 인지도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9.4%). 그리고 식생활비에 따른 친환경 식품의 구입 동기, 가사 노동의 형태에 따른 친환경 식품의 구입 동기 및 이용 횟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

## 참고문헌

1. 전태갑, 송문갑, 조창완, 김덕현, 윤선, 서정원, 방은제. 환경농업, pp.19-23.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2. 김종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354:40-52. 1996
3. 윤석원. 유기농산물 생산, 소비, 유통,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농림기술개발과제보고서. 농림부. 1999.
4. 최춘연. 현대 산업사회와 식생활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213-222. 1995
5. Lee, EJ, Ro, SO and Lee, CH. A survey on the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ood in Korea(I)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and food habit. *Korean J. Dietary Culture*. 11:475-485. 1996
6. Lee, EJ, Ro, SO and Lee, CH. A survey on the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ood in Korea(II)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foods. *Korean J. Dietary Culture*. 11:487-495. 1996
7. Nam, KS, Lee, HI, Lee, JY and Kim, MS. A study on perception, interest and consumption to the organic food of housewives. *Korean J. Dietary Culture*. 9:289-301. 1994
8. Nam, KS. A study on decision-making processes on organic food. *Korean J. Dietary Culture*. 9:379-394.

- 1994
9. 김병숙. 주부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만족과 영향 변수에 관한 연구. 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0. 안숙자. 서울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5:147-161. 1989
  11. Han, MY and An MS. A study on the purchase action of processed foods and the recognition for food additives of urban housewives. *Korean J. Dietary Culture*. 13:119-126. 1998
  12. 국민식생활 의식구조 조사보고서.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11:105-118. 1989
  13. SAS Institute, Inc. 1990. SAS User's Guide.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Institute. Cary, NC, USA
  14. Ko, JS. A study on the direct transa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Rural Life Science*. 23: 10-17. 2002
- 
- (2005년 12월 12일 접수; 2006년 2월 14일 채택)